

# 넓고 척척한 지하보도, 문화공간 탈바꿈

## 전주시, 시설물 개선·문화공간 활용 용역 실시

전주시가 넓고 척척한 지하보도를 시민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키기로 했다. 전주시는 과거 차량의 소통에 중점을 두고 설치된 보행자 횡단시설인 지하보도를 전면 개선해 시민들이 걷기 편리한 보행환경을 갖춘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현재 전주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지하보도는 평화·중산·광장·서신·덕진·아남 등 총 6곳이다.

대표적으로, 시는 지하보도 폭원 법적 기준(6m)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벽면걸리리를 조성하고, 휴게 시설을 설치하는 등 시민들에게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지하보도 개선방안을 수립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오는 2월부터 약 6개월에 걸쳐 지하보도 시설물 개선 및 문화공간 활용방안 관련 검토 용역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관련 다목적구 구성·운영 등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부서 간 T/F팀 구성을 통해 지하보도 이용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나갈 계

획이다. 이를 통해 노후된 조명과 환기, 배수시설 등은 교체·정비하고, 삭막한 천장과 바닥 등은 리모델링을 통해 친환경적인 공간으로 조성하는 등 지하보도별 다양한 문제점들을 해소해 지하보도의 이용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 현재 전주에 설치된 지하보도는 평화·중산·광장·서신·덕진·아남 등 총 6곳으로, 대부분 지하보행로의 폭이 6~8m로 좁고 설치된 지 20년 이상 경과해 노후화가 심각한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

최근 보행자 중심의 패러다임 변화로 지하보도 상부에 횡단보도가 추가 설치되면서 지하보도의 이용률이 저조해져 점차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

실제, 시간당 이용자가 500여명인 덕진지하보도를 제외한 나머지 5곳은 낮은 이용률로 인해 우범지대 형성 등 새로운 문제점이 대두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대부분의 지하보도는 조명시설 및 배수 불량, 환풍시설 미비, 벽면의 단순한 마감처리 등으로 삭막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으며, 음침하고 불쾌



연휴 끝나고 한파주의보

민족대명절 설 연휴가 끝난 지난날 31일 전국의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0도를 기록하는 등 한파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외국인 관광객들이 거리를 걷고 있다.

한 환경으로 이용기피 현상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이에 시는 지하보도 시설물 개선을 통해 넓고 척척했던 지하보도를 쾌적한 보행환경을 갖춘 문화공간으로 바꿔 나가기로 했다.

시는 장애인 등 보행약자들도 지하보도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휠체어 리프트 설치 여부 등도 관련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유영문 전주시 견고싶은도시과장은 "이번 용역은 지하보도가 시민들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개선방안을 찾기 위한 것"이라면서 "용역결과를 토대로 시설물 개선과 문화 공간 활용, 지하보도 폐쇄 등 지하보도 활용방안을 검토할 계획인 만큼, 지하보도 개선에 대해 관심 있는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김영재기자

## 특검, 최순실 두번째 체포영장 청구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검팀장이 지난달 31일 오후 4시 36분께 최순실(61·구속기소)씨를 상대로 정부 해외 추진 사업에 개입해 뒷돈을 챙긴 혐의(알선수재)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22일 업무방해 혐의로 청구한 체포영장에 이어 이어 두번째다. 특검팀은 최씨가 지난해 정부가 추진한 '미안마 K타운 프로젝트'에 미안마 현지 회사 M사를 참여시키는 대가로 해당 업체 지분을 차명으로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K타운 사업은 미안마에 한류 관련 기업이 입점할 760억원 규모의 컨벤션 센터를 무상으로 건립하는 내용의 프로젝트다. 사업 타당성 등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추진 과정에서 무산된 바 있다.

특검팀은 최씨가 이란 K타워 사업과 마찬가지로 K타운 사업에도 개입해 각종 이권을 챙기려고 했던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특검팀은 최씨에 대한 체포영장 이 발부되면 재판일정을 고려해 강제구인한 뒤, 미안마 K타운 사업 과정에 개입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이에 대한 조사를 위해 특검팀은 이날 오전 유재경(58) 주미안마 대사

를 불러보고 있다. 유 대사는 이날 오전 8시에 공항에 도착해 곧바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유 대사는 특검에 출석하기 전 "누가 나를 이 자리에까지 추천했는지 모른다"고 최씨의 연관성을 부인했지만, 오전 조사에서 "최씨를 여러차례 만났고, 최씨의 추천으로 대사가 됐다"고 인정한 상태다.

한편 최씨는 지난달 24일 한 차례 특검팀에 출석한 뒤 강압 수사 등을 이유로 특검팀 소환통보에 불응하고 있다. 지난 25일 특검팀에 업무 방해 혐의로 체포돼 압송되는 과정에서 최씨는 "특검이 자백을 강요하고 있다. 너무 억울하다"고 고함을 지르기도 했다.

또 최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 수사관은 최씨에게 폭행보다 더 상처를 주는 폭언을 연발해 정신적 피해를 가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어떠한 강압수사도 없었다"며 "최씨가 허위사실로 특검의 명예를 훼손한 데 깊은 유감"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최씨는 30일에도 "강압수사에 대한 특검의 발표가 납득할 수 없다"는 이유로 특검의 소환통보를 거부했다.

/뉴시스

## 전주시, 저소득층 노인의치 시술 무료 제공

### 9일까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

전주시가 저소득층 어르신 80명에게 노인의치(틀니) 시술을 무료로 제공키로 했다.

전주시보건소(소장 김경숙)는 어르신들이 씹는 즐거움으로 행복한 노후를 누릴 수 있도록 노인의치 사업 대상자 신청을 오는 9일까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한다.

시는 올해 총 8800만원을 들여 어르신 80명에게 틀니를 무료로 시술해줄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치아의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한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전환자 중 구강검진 상 의치(틀니)장착이 가능한 자이다.

단, 국가무료노인틀니사업으로 보건소를 통해 틀니를 했거나, 만 의료급

여 및 건강보험 혜택을 받아 틀니를 한지 7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건소는 신청한 어르신들 중 구강검진 및 전신건강상태, 틀니시술 가능 여부 확인한 후 최종 시술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어르신들은 전주시 치과의사회와 연계된 치과의원을 방문해 틀니를 장착하게 된다.

이에 앞서 보건소는 지난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저소득층 어르신들의 치아가는 회복을 위해 총 30억2000만원을 들여 1908명에게 틀니 장착을 지원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틀니는 음식을 씹는 기능과 심미적인 역할 등 구강기능 회복에 기여한다"면서 "노인의치(틀니)사업은 어르신들이 자신의 치



아를 갖는 기회가 돼 건강한 구강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된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구강보건서비스 제공을 통해 어르신들의 구강기능을 회복시키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하는데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인의치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보건소(063-281-6321~2)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김영재 기자

## 출소 3개월만에 다시 절도 40대 여성에 징역 3년 선고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31일 출소 3개월만에 절도와 사찰에서 절도를 저지른 혐의(절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박모씨(40,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1일 오후 1시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 소재의 한 사찰에서 약 40만원 상당의 돼지저금통과 시주봉투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박씨는 전주 소재의 사찰과 절집 등 9곳에서 56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과거에도 10차례에 걸친 상습 절도행위로 처벌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누범 기간에 반복해 범행했고 피해보상을 위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민근 기자

## 전주시, 설연휴 기간 방치된 생활쓰레기 집중 정비

전주시가 시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설 연휴기간 중 수거되지 않은 생활쓰레기를 집중 정비하기로 했다.

전주시는 31일부터 오는 2월 3일까지 지난 4일간의 설 연휴기간 동안 시민생활권 주변 곳곳에 방치된 생활쓰레기에 대한 일제정비에 나선다.

이 기간 중, 시는 공무원과 환경관리원, 기간제근로자 등을 총 동원해 생활권 주변에 방치된 쓰레기를 집중 정

비할 계획이다.

정비 대상은 역과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 주변과 주택가 공한지, 이면도로 등에 적치된 음식물쓰레기와 혼합쓰레기 등 연휴기간 중 수거되지 않고 방치된 생활쓰레기다.

전주시 복지환경과 관계자는 "거리 곳곳에 적치된 쓰레기를 집중 수거해 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 대형 화물트럭 배터리 훔쳐 판매한 20대 검거

CCTV가 없는 곳만 몰라 대형 화물트럭의 배터리를 훔쳐 판매한 20대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31일 대형 화물차 트럭의 배터리를 훔쳐 판매한 혐의(특수절도)로 김모씨(21,남)과 박모씨(22,남)를 형사입건 했다.

이 들은 지난 2일 오전 4시께 전주

시 덕진구에 주차돼 있던 대형트럭에서 150만원 상당의 배터리4개를 훔치는 등 13회에 걸쳐 600만원 상당의 배터리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배터리를 고물상에 팔고 250만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김민근 기자